



[시장동향] 식품 물가 상승으로 세계 식량안보 위협

- 식품 가격 상승으로 유제품 수요에도 영향 미칠 것



식품 물가 상승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전역에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 8월 식료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체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도 전년대비 33%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무부(USDA) 산하 해외농업국(FAS)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는 약 9억 2,100만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한 가운데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식량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Daily Dairy Report의 낙농분석가는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보다 식품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재정적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유제품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덧붙였다. < 출처 : dairyherd.com, 9월 23일 >

[낙농생산] 카놀라 보충사료, 원유생산량 증가 및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

- 생산성 향상은 물론 메탄 배출량 및 질소 함량 감소에 효과적



카놀라 사료가 원유생산량 증가는 물론 메탄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연구진이 낙농과학저널을 통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카놀라를 사료에 보충했을 때 원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내 메탄 배출량은 물론 분뇨의 질소 함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이 입증됨에 따라 낙농업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seehafernews.com, 9월 2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